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8호 [주제 제25116호] 주제 104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지난 35년동안 우리 당이 주체혁명완성업의 만년토대를 다지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력사적인 대회이다.

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온 나라는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있다.

10월의 대추진장의 높은 연단에서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인민에게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총공격전에 천만군민이 떨쳐나섰다.

우리 황철로동계급은 이미 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장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고 철강제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승리의 직선주루에 들어선 황철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글거리는 용광로의 붉은 쇠물은 그대로 어머니당대회를 최상급대의 성과로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끓는 피이고 기세에 울리는 산소분리기의 우렁찬 동음은 주체의 쇠물로 당을 받들려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장의 맥동이다.

우리는 지극한 자기고자적인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철강제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총정의 결의를 다지면서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 총력기합것을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믿을 따르고 용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력사의 가장 준엄한 시련을 뚫고 전화위부의 기적을 창조하며 세계가 경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류예없이 교활하고 악랄하였지만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히려 천백배로 다져지고 군사경제적 토대는 비상히 강화되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러보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이며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정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이다.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존엄을 옹위하고 빛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선봉에서 붉은기울을 높이 들고 내달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로동계급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닮은 조선로동계급에 대한 신뢰와 기적이 함축되어있고 나라의 만아름, 주체혁명의 핵심력량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가기를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졌다.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등장하여 수백년, 이장구한 나날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고 위대한 수령들을 어버이로 모시며 영원한 혼연일체속에서 혁명해나가는 우리들처럼 긍지높고 행복한 로동계급은 없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정호를 빛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당에 대한 백옥같은 총정과 순결한 사랑, 백철불굴의 투쟁정신과 선구자의 용감성을 지닌 조선로동계급의 기개를 높이 펼쳐야 한다.

우리의 전세대 로동계급이 바로 그렇게 투쟁하였다.

빈터에서 민주의 새 나라를 세우고 제머미우에서 사회주의공명국가로, 또다시 고난의 언덕을 넘어 강성국가의 최후승리여로, 이 간고한 길에서 참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 가슴아픈 희생과 목절인들 그 얼마였던가.

그때마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당중앙을 앞장서서 결사옹위하고 거세한 증상의 동음으로 우리 조국에 비약의 승결을 더해 주었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환적인 시기마다 열리었던 당대회를 일심단결의 위대한 승리로, 창조와 건설의 전진기로 빛내어왔다.

당 제6차대회를 앞둔 장엄한 시기에도 100일 전투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뎀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당대회를 맞이한 우리들이 아닌가.

이제 당 제7차대회까지는 5개월 남짓한 기간이 있다.

이 나날은 당의 부름이라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힘이 총폭발할 때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할 참으로 중대한 시기이다.

우리가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은 애국총정의 담방울이 스며있는 량심의 결정체, 의리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며 자기 한에서 가장 뜻깊고 값진 로력적선물로 되어야 한다.

《동투는 어떤 로력적선물을 안고 어머니당대회를 맞이하였는가?》이 물음에 몇몇이, 자랑스럽게 대답할수 있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어 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한 단시 승리한다는 절대적인 신념, 이것이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황철이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비약의 용마에 태워주시신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8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8차례나 우리 황철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급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철강제생산공정을 꾸려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황철을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황철로동계급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면서 오늘날 온 나라 인민의 력사적 숙원이었던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백옥의 보검으로 물려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따라 나아가길 때 그 어떤 시련의 난파도도 헤쳐갈수 있고 반드시 갈갈 날이 온다는것이 70년의 장구한 투쟁속에서 우리 황철로동계급이 체득한 철의 진

리이다.

하늘도 이겨내는 기적의 원천이 불굴의 정신력이라면 그 정신력의 원천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로동계급의 무쇠마치로 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며 우리 당의 백옥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나가자!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는 맹렬한 돌격정신, 이것이 오늘날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차넘쳐야 할 전투적기질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마다에서 후세에 길이 빛날 위대한 시대정신, 위대한 시대속도를 창조하였다.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공명화를 실현한 1950년대와 60년대가 그러하였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진기를 열어놓은 70년대와 80년대가 그러하였다.

오늘의 세대가 그때의 영웅세대들의 위훈을 두고두고 추억하듯이 후대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빛나는 영웅사시시의 창조자로 우리 세대를 영원히 추억하게 최대의 속도로 질풍쳐 내달리자!

우리 당이 바라는것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웅군한게 도시와 맞먹는 미미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운 인민군대의 단속대의 건설속도이며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를 단 120여일동안에 해제해 백두대지에 청년장군의 대기념비를 일떠세운 영웅청년들의 돌격정신이다.

전국의 로동계급이여!

하늘을 날은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대지를 박고 오르는 위성속도로 오늘이 다르고 배일이 다르며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모습을 빛내어나가자!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2016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지고보물로 앞당겨 완수하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속이 새겨져 있는 단위원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 서자!

우리 대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관철되지 못하였을 보고라도 속수무욕으로 앉아못게는 무뎠한자들, 자그마한 성과로 자만자족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보수주의자들, 난관앞에 주저앉아 우는소리만 하는 패배주의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로동계급의 억센 주먹으로 우리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온갖 잡귀신들을 쳐갈기며 5월의 결승선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굳어진 기근병, 경직된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자!

자력갱생에 우리의 살길이 있고 기적창조의 지평대가 있다.

우리를 기이코 달려 죽이려는 적들의 책동은 극도로 이르고 있지만 자력갱생하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신념은 더욱더 굳어져지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력갱생의 벅찬 시대다 아닌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어나나 당이 준 임무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훌륭히 수행한 국방공업부문과 김정일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성과가 온 나라를 무한히 고무해주고있다.

우리 황철로동계급도 이번엔 경합과 기술력량이 부족했지만 주체회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

다는 불굴의 의지를 안고 방대한 우리 식의 용광로건설과 새로운 합금철생산기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완전무결하게 해졌다.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을 걸고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한다.

정신집중 없이 남의것을 넘겨다보며 그 무엇에 기대를 걸고 살아나가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수입병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문제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만이 해결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잊지 말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산화의 된바람을 일으키자!

세계를 내다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려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포부이며 목표이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로동계급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현대과학기술로 첨단을 개척해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과학기술을 외면하면 시대의 락오자가 된다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집단을 떠받드는 로동자본들, 창고고인의 명수,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가 되자!

내장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단위의 기술현대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자!

누구나 전진과학기술인재회의 거점인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 활용하고 원격교육제에 망라되어 실현기행의 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자!

새로운 총공격전의 신희관속성은 울렸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 지식인들로부터 청년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할 전인민적인 총력사건이며 정치사상전선과 경제전선, 과학기술전선과 문화예술전선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할 전국구적인 총동원전이다.

강성국가건설의 거대한 투쟁속에서 부문과 부문, 공장과 공장, 직장과 직장이 서로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집단적혁명의 불바람,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계에 일으키자!

인민경제 선봉부문과 기간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라는 부름을 달려만 웨치지 말고 대고조승리의 돌바람을 열어나가는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안겨준 그 믿음에 보답해나가자!

천리마의 고향 강산과 김철, 우리 황철이 앞장에 떨쳐일어나 주체적인 철강제생산의 동음을 세계에 울려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전구대에서 요구하는 철강제를 광량 생산보장하자!

전력과 수력발전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1kW의 전력, 1kg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대고조전역들에 보내주자!

철도운수부문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인민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같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물동량을 제때에 실어나르자!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 경제발전의 밑뿌리라는 높은 자각을 안

주제 104(2015)년 12월 3일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동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수 박사인 체육과학원 부원장 리동규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3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프 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을 치하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로공들이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물고기사태를 알아왔으며 안해들도 모두 떨쳐나 물고기 가공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애국자가 장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귀중한 혁명전우, 참 좋은 동지들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환구망, 국제방송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 일본의 교도통신, 미국의 인터넷드렘페이지 《구글뉴스》, 도이첼란드판제언단 인터넷드렘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즈베즈다TV방송, 인터넷 뉴스 가제마, 루,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보도망, 청년망, 방송망, 광명망, 동북보도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 세네갈신문

##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글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베닌에서는 강연회가, 가나에서는 도서전시회가 10월 20일과 11월 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강성명연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도서전시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전북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해수 표호비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항일투쟁투쟁의 기적이었던 백두산밀영에서 1942년 2월 16일에 탄생하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각하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의 위업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어나가실 향도성이라고 칭송하면서 밀림속의 나무들에 그이의 탄생을 알리는 글자발들을 새기었다.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가나전축회사 사장 돈 아예를 비롯 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 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류사주 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기네군 알마미 싸모리 투레병영에서는 강연회가,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이디스 케메타지부, 예카지부, 불레지부, 클랄레지부에서는 토론회가, 에티오피아 기를병원에서는 좌담회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

기네군 알마미 싸모리 투레병영 연구특공대대장은 《인민이 못 잊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시니 때로부터 4년이 되었습니다.

김정일각하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정일각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위인중의 위인입니다.

김정일각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나온 나날은 그이에 대한 만민적애를 그리움과 흠모심이 끝없이 분출된 나날이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김일성주의적

고 첨단기술들과 설비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생산하자!

남흥과 흥남, 2.8비날론을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원에 기초한 자립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경공업부문과 농업전선에 필요한 원료와 비료를 원만히 생산안정하자!

우리모두가 뜻깊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어머니당에 드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의 커다란 성과이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돌바람을 열어나가도록 우리 로동계급이 억센 힘으로 떨쳐우자!

농업전선의 병기창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더 많은 농기계와 부속품을 생산하여 사회주의혁명병들에 보내주자!

수산부문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처럼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몸이 되어 물고기사태를 안아오므로써 온 나라 바다와 포구들에 호רות 《이제 어경》을 펼쳐놓자!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자!

건설부문의 로동계급은 새 세기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공장들과 생산기지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릴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더 많이 일떠세워 건설의 대대병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자!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며 자기 열려, 자기 고향, 자기 마을에 푸른 숲이 설레이게 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배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신심부구전투에서도 우리 로동계급이 맨 앞장에 서자!

백두산청년장군의 주인공들이 새 세대 로동계급에게 절결히 호소한다.

천후의 세대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이겨낸 전세대 로동계급의 신념의 바통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 청년로동계급이다.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인척부대로, 청년장군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시대 청년영웅의 기상과 용맹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자!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에 용약 달려나오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상을 들뜨이놓는 영웅청년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자!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펼쳐 휘날리는 성스러운 당기를 보라!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우리 당마크의 맨 첫자리에 우리 로동계급을 상징하는 미치기 새겨져있다.

열렬한 총정과 의리의 결정체인 그 억센 마지를 틀어쥐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

모두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 앞으로!

주제 104(2015)년 12월 3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동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결기모임 참가자일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 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 진행,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을 접한 나라 전체 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다. 혁명의 년대마다 철강재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황철의 로동계급은 지금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는 맹렬한 돌격정신으로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어머니당대회를 최상최대의 성과로 맞이할 혁명적기상으로 용감처럼 뛰어넘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총만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생노병을 헤치는 최후병,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어 집단적열의의 불꽃을 높이 들고 승리의 직선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로동계급의 정신력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언제나 그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개척자가 되자!》의 구호판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서기,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악으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서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로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영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작별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리날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특음

### 로동자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중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관통되어 있는 정치신조였다. 인민이 바라다보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으로 헌신의 찬란 리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인민이 라고 하시였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 였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금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자국은 조국밖 그 어디 에나 력력히 수놓여져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 구강병에방원에도 잊지 못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새겨져있다. 주제 70(1981)년 6월 어느날이었다.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일정이 바쁘신 속에서도 함경남도구강병에방원을 찾으시었다. 치료실마타에는 최신의로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층에 있는 어느 한 치료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거기에는 보기 드문 최신형종합치로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크고 요란한 구강병원은 아직 평양에도 없었다 하시면서 로동계급이 많이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함흥에 이런 현대적인 구강병원을 건설한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한 일군이 이 기대는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수반급들이 전용으로 리용하고있는 설비라고, 그래서 이 기대를 들여올 때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 설비를 조선에서는 어떻게 지방도시의 병원설비로 들어가는가고 중시 의문을 품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왕들만 쓴다?...그러면 야단났구만, 우리 나라에는 왕이 없는데...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방안에는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웃으시며 그러나 걱정할것은 없다고,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는가고, 바로 로동자들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교섭하시었다. 일군들은 한숨을 거두었다. 웃음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뜨겁고 웅성깊은 가르침이였다. 왕들만 앉는 자리에 바로 우리 로동계급이 앉아야 한다! 일군들은 생각이 깊어짐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로동자라면 사회의 최하층에서 천대와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이렇듯 함경남도구강병에방원은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새로 건설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원을 떠나시면서 병원을 크게 짓고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어놓았다고 선전만 하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살지기로 이 병원에서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리시었다. 그후 함경남도구강병에방원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뜨겁게 전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왕들만 앉는 자리에 우리 로동계급, 우리 인민이 앉았다. 오늘날은 나라 인민들은 이인 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아버지사랑에 대하여 깊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덕성탄광 조급당위원회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실효를 거두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실린 당보를 가지고 당원들과 탄부들에게 들어가 그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 활동소식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만민의 배고 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인민군대의 어로전사들처럼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결과 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자고 호소하였다. 로동통신원 연 전 행

#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 남흥 청년 화학련합 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남흥이 뚫는다. 정신이 번쩍 드는 혁신의 새 소식들이 끝없이 전해지는 남흥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빛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하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벽간 승결은 뜻깊은 당대회를 전제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있는 이곳 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임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결의목표부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웠다.

여기서 당위원회의 중시한것은 방대하면서도 현실성있는 목표를 세우는것이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결의목표를 몇몇 일군들이 책상머리에서 세울것이 아니라 목표수행의

직접적담당자인 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합쳐 구체적이면서도 높이 세우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이 현상으로 그들은 당 제6차대회전야의 분위기도 되새겨주고 당의 피끓는 호소에 남다른 화답해나서며 기적을 창조한 전세대로 동계급의 투쟁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당 제7차대회를 전제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런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는것과 동시에 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과 함께 높은 목표를 제시할수 있는 혁신적인 안도 탐구하였다. 방대한 목표를 내세우자면 그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담보가 안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 비서 전경진동무는 채형곤배아작을 다음에 2월까지 끝낼것으로 타산한 목표를 놓고 전투현장에서 기술자, 기능공들과 지적자격을 토의해보았다. 전투를 보다 앞당겨 끝내기 위해서였다.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며칠 판가공을 공중적으로 내밀어 보자는 안이 제기되였다. 당일 군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총동원된 다면 수반간의 며칠판을 빠른 기간에 해결할수 있었단것

이다. 하여 채형곤배아작전투를 올해안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결의목표는 다시 작성되였다.

이렇듯 당일군들이 예비는 군중의 심장속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한 결과 기업소에서는 이전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은 목표들을 내세우게 되였다.

주제비료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최고수준의 비료생산목표를 내걸었으며 3기의 75t순환비료중보이라 기본건설완성, 가스발생로 2대 중설, 채형곤배아작제설치, 아르코생산공정 설비를 비롯하여 방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종업원들의 생활조건개선과 관련한 목표도 대단했다. 고기생산능력을 년간 1000t 수준으로 제고, 남흥원전설 완공, 80hp고압배 3척 건조, 10정보의 박막은실전설 완공, 100세대의 살림집 건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방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세웠다.

당위원회 부부장이상 일군들에게 중요단위들을 하나씩 맡겨주어 전투목표수행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일군들의 지도사업요강에 전투 목표수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매주 어김없이 그 정형을 총화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련합기업소, 직장, 작업반전투목표들을 해당 단위들에 게시하고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을 위한 무기로 들어주고 결의목표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 가도록 하였다. 결의목표에 반영된 과업집행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력으로 풀어나기 위하여 각 부문의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기술집단을 꾸려주고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맡겨주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직접 현지에서 결된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면서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색은 75t순환비료중보이라 건설장에서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생산을 필요준 중기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3기의 75t순환비료중보이라 기본건설은 사실 다음에달까지 끝내는것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던것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끝내기로 결심하고 결의목표에 대담하게 반영하였다. 그것을 실현

## 무거운 짐을 지고 최대의 속도로

저주파유도로를 중주파유도로로 개조, 컴퓨터에 의한 작업기록 생성시험대의 완성, 작업기실린더가공공정에 수차 표시장치의 도입, 칩판공정에 자동온도조종장치의 도입...

당 제7차대회전으로 공장이 정렬해야 할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한 목표들이었다. 어떻게 되어 지난 시기 같은 엄두도 들지 않는 방대한 일감들이 전투목표로 세워지게 되었으며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그 수행을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합없이 떨쳐 나설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해당 부문, 해당 단위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저주파유도로를 중주파유도로로 개조하는 문제를 놓고있다.

지난해부터 상정되었던 이 문제는 올해에 들어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였다. 전기를 절약하면서 차지방 용해시간을 줄여 주물소제생산을 늘리면 결정적으로 중주파유도로

## 전천 작업기 공장 조급당 위원회에서

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하지만 자체와 자급이 부족하여 공장일군들은 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지난 10월말이였다. 다음에 5월초에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한다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일군들과 노동자들을 비상히 각성시켰다. 그들은 작업기생산의 돌파구인 주물소제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킬것을 결의해 나갔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양양된 열의와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한달동안에 저주파유도로를 중주파유도로로 개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조급당비서 최선화동무는 주물직장 노동자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소재생산자 작업기생산이라는 확고한 판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1970년대 당의 기초조직시기부터 당사업을 해오고있는 오랜 일군, 70살이 넘는 오늘도 청춘시절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출신 뛰어들어 애재를 하고 내달리는 그의 모습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을 분발시켰다.

자재조건, 자금조건만 내세우면서 신심이 없어하던 일부 일군들의 사고관점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착안기생산에서 전제없는 혁신을 이룩한 자량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려는 드넓은 각오로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떨쳐나

## 부서별

원들속에 들어가 당 제7차대회를 전제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더 분발해나서도록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렸다.

중공기에서 올려나오는 학찬 노래소리, 적제함에 학들을 가득 싣고 무리우는 트락트르들, 흘러내리는 팜방음도 셋을 새겼어...부처런히 일손을 놀리는 농장원들...

그야말로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는 공사장의 열기는 대단했다. 채석장도 마찬가지였다.

전투의 앞장에는 언제나 리당일군들이 서있었다. 부비서 김은철동무를 비롯한 리당일군들이 대중과 한담어려가 되어 막들을 나르며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이 양양되니 전투는 낮에 이어 밤에도 한없이 계속되었다. 하여 공사를 단 이틀반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안아왔다. 이것은 3배이상의 공사실적을 창조한셈이였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업기풍이 좋다. 허 일 무

## 본사기자 김승표

## 화선에 나가 돌파구를 열자

### 대안 전기공장 조급당 위원회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된 대안전기공장의 승결이 역시 다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때로부터 하루 하루가 지난 시기와는 전혀 다른 비상이 시선으로 흐르고있다.

얼마만 삼지연군을 비롯한 여러 단원과 건설대상들에 필요한 대용량전기설비들이 대안 땅을 떠나갔다.

비상한 장조의 열정과 헌신의 맘이 뜨겁게 어리웠는 설비들을 떠나보내는 대안사람들의 가슴속에는 격정의 파도가 솟구쳐올랐다.

종전후이면 생산주기가 수십일 은 실리 결여가 하는 설비들을 그들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냈던 것이다.

하디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맨 앞자리이다. 일군들은 생능질을 헤쳐나가는 데서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 대오를 이끌어 나가는 기린자라 되어야 합니다.»**

삼지연군의 중소형발전소들에

보내준 전기설비생산지 원료, 자재 등의 부족으로 제자거결음을 하고있던 그들은 당 제7차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접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거대한 지진과도 같은 충격이 모든 공장들을 뒤흔들었다. 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의 호소는 잠시나마 주저앉았던 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다.

대안전기공장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맨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척후대의 역할을 하는 공장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다.

척후대의 역할을 하는 공장, 그 앞장에 우리 일군들이 서자. 당, 행정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안고 화선에 나섰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상공세를 두세게 들이쳤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힘있는 노래소리가 전투장마다에서 낮에 밤을

이어 울려 퍼지고 종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직관선전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돌파구이 있는 앞장에는 책임 일군들이 서있었다.

전투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결된 문제를 풀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어들어가는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서는 사상공세를 두세게 들이쳤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힘있는 노래소리가 전투장마다에서 낮에 밤을

이어 울려 퍼지고 종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직관선전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돌파구이 있는 앞장에는 책임 일군들이 서있었다.

전투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결된 문제를 풀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어들어가는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서는 사상공세를 두세게 들이쳤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힘있는 노래소리가 전투장마다에서 낮에 밤을

전투를 깨뜨렸던 것이다. 전투진지를 화선에 정하고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젖힌 조급당위원회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색이 안아온 빛나는 결의였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대안의 비상한 기상이고 승결이며 발걸음이다.

본사기자 함영철

## 공사실적이 3배 이상 높아진 비결

### 신계군 백곡리당 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결의로 령도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신계군 백곡리당위원회 일군들도 훌륭한 투쟁기풍을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함**

이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농장원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모든 사업에서 이길수 있는 상황들을 면밀히 타산하면서 작전을 치밀하게 세우고 립체전을 벌려 단숨에 와타닥 해제 끼는것이였다.

이것은 얼마전에 진행된 로라스케트장기조공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900m가 되는 로라스케트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계획된 공사량은 방대하였다. 수백㎡나 되는 막들을 채석장에서 채취하여 날라다 로라스케트장기조공을 닦아야 하였다.

그러나 리당비서 김호영동무는 이번 공사도 짧은 기간에 능히 끝낼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진행한 건설성공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던것이였다.

리당비서는 일군들과 현지를 밟아가며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계획된 공사량을 필요로 하는 로력, 작업공구, 운수수단 등을 타산하면서 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공세를 벌리는 문제, 분공조직 등 공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리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사가 시작되자 모든 당세포들과 농장

원들속에 들어가 당 제7차대회를 전제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더 분발해나서도록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렸다.

중공기에서 올려나오는 학찬 노래소리, 적제함에 학들을 가득 싣고 무리우는 트락트르들, 흘러내리는 팜방음도 셋을 새겼어...부처런히 일손을 놀리는 농장원들...

그야말로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는 공사장의 열기는 대단했다. 채석장도 마찬가지였다.

전투의 앞장에는 언제나 리당일군들이 서있었다. 부비서 김은철동무를 비롯한 리당일군들이 대중과 한담어려가 되어 막들을 나르며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이 양양되니 전투는 낮에 이어 밤에도 한없이 계속되었다. 하여 공사를 단 이틀반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안아왔다. 이것은 3배이상의 공사실적을 창조한셈이였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업기풍이 좋다. 허 일 무

본사기자 김승표

## 애국충정의 불길높이 더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자

###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조급당비서 전경화의 보고에 이어 지대인장순호, 3대혁명소조원 강수민, 로동자 리경원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현지개별면담을 찾으신 시에 질 좋고 뽕이 있는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고 열망하시던 때처럼 열정을 불태우시겠다고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설, 도안실,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당의 방침관철에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겠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애봉산»** 상표를 단 구두의 질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에 열화같은 애국충정의 불길을 지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여 령도적지침을 창조할데, 경공업부문 현대화의 기지를 남기지 않는 공장적 질풍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비약을 이룩할것을 결의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비로소적으로 예비와 잠재력을 넘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을 안고 신발생산에서 전제없는 기계와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되게 될 영광의 5월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편지자 감격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가 된다

###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조급당 위원회에서

3대혁명명승은기행취송발단 4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3대혁명수행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단위가 되었다.

얼마전에 3중3대혁명명승은기를 수여받은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이다.

이 단위가 대중운동에서 이렇듯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조급당위원회가 3중3대혁명명승은기를 제정하기 위한 투쟁의 전진간 사상을 지대한 무기로 틀어쥐고 과학자들과 함께 한데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분은 우리의 아버지장군님께서였다.

그 연구사업에 대한 실패를 구체적으로 료해 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과학자들은 꼭 해낼것이라고, 이 어려운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게 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

아버지장군님의 그 믿음은 과학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폭발시켰다. 제작소의 과학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끝내 그 연구과제를 완수하고야말았다.

이를 계기로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입니다.»**

이것 조급당위원회가 3중3대혁명명승은기행취송을 위한 사상혁명수행에서 틀어쥔 방법론은 크게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하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적지침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제작소를 대공요양거점으로 훌륭히 꾸리고 그 중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었다는 다른 하나는 실천을 통해서는 과학자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었다.

조급당위원회가 여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준 계기가 있다.

몇해전 제작소의 과학자들

에 최첨단을 돌파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그때까지 어느 문헌에도 없었고 어느 연구자도 상상해보지 못한 어려운 연구과제였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첨단단계의 초해결기반으로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하던 과학자들도 당황해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분은 우리의 아버지장군님께서였다.

그 연구사업에 대한 실패를 구체적으로 료해 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과학자들은 꼭 해낼것이라고, 이 어려운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게 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

아버지장군님의 그 믿음은 과학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폭발시켰다. 제작소의 과학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끝내 그 연구과제를 완수하고야말았다.

이를 계기로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제작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어 청사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밝고 정중히 도시였으며 연혁소개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도 훌륭히 개건하였다. 또한 제작소의 외부와 내부에 당의 기본구호들과 직관문들을 게시하여 5대교양마당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일리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구내의 림원화, 공원화도 실현하여 명도업적단위라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조급당비서 김남진, 소장 류상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언제나 앞채를 메고 밤이 깊도록 뛰었다.

제작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어 청사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밝고 정중히 도시였으며 연혁소개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도 훌륭히 개건하였다. 또한 제작소의 외부와 내부에 당의 기본구호들과 직관문들을 게시하여 5대교양마당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일리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구내의 림원화, 공원화도 실현하여 명도업적단위라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사상의 강자가 되어야 실력의 강자, 정열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미지의 세계도 개척할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양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당세포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과학자들의 투쟁에 맞는 분공조직사업도 잘 짜고들었으며 새로운 형식의 사상교양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극 활용해나갔도록 하였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수행에 도입하기 위해 현장에 나갈 때에는 그 단위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적정신부터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서 이곳 과학자들이 진행한 어느 한 과학연구성과의 도입과정이 그 좋은 실례로 된다.

현지에 나갈 과학자들은 도입사업에 착수하기 앞서 먼저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서 새겨진 명도업적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부터 진행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체제가 뜨겁게 느껴지는 뜻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적정신을 더욱 심장깊이 체득하였으며 수령님의 불멸의 진승업적을 만대하에 길이 빛내시리니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었다.

하기에 제작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혁명사적물들을 영부존하기 위한 사업에 불타는 정열과 깨끗한 맘을 바쳐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게 하자

## 백두의 칼바람에 만선기 필 필 휘날려 가리

### 년 단 물고기잡이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원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게 할 일념으로 어로전투에 한사관없이 펼쳐나선 원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백두의 칼바람에 투쟁의 뜻을 단 이들은 날마다 싸우며 어장마다에서 치열한 돌격전을 벌이며 오직 물고기잡이계획을 기전전에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오늘의 어로전투가 곧 당정책을 위전이라는 심오한 각오로 이들을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동맹전투를 주름잡으며 애국충정의 배고동

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름, 자기 단원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匪懈 절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조건이 좋아서 아니었다. 집중어로전투에 진입한 이들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진 물고기잡이 목표를 스스로 또다시 근 2배로 높이 정할 때 날마다 무언이 많았었던가, 그 누구의 지원을 기대해서였던가.

물고기대풍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투를 보라. 우리도 그들처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떨쳐 일어나 혁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라!

나이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서로서로 피뎠는 심장의 뱃살을 나누며 전투소리를 차지 하였다. 문남철, 박영호, 김인철 등 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으로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주요어선마다 총원처럼 한물이 아니라 세대의 그물들이 거망과 드래그작업을 체계적으로!

지난해 집중어로전의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시간과 기망양 어획량을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들이 적극적으로 실속이 되었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선장 박영호, 장정현 등 어로공들의 고기배들과

어로공들이 날마다 파고히 헤쳐 합경남도 리원앞바다로부터 강릉도 고성앞바다에 이르는 동해어장에서 물고기잡이전투를 치열하게 벌였다.

쌍둥이배마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이들과 밤을 맞쳐 수산사업소의 수백, 수십hp의 어선들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완강하게 벌였다.

매일매일의 자랑한 실적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맹천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파도, 물고기떼를 쫓아온 파도따라잡으며 날마다 어선의 연 수심일군...

이날 사나운 풍랑속에서도 이들이 결사적인 투쟁으로 끝까지 지켜낸 한마리 한마리의 물고기들은 결코 단순한 어획물이 아니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묵묵히 지켜온 결사의 의지가 낳은 고귀한 충정의 결실이었으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적으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더욱 차넘치게 하려는 애국의 넓고 혁신의 피와 땀이었다.

외동밖의 약초식당에도 날마다 어로전투를 치위하며 밤을 지새운 기사장 김인철 등, 당의 뜻을 받들어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힘차게 울려달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순간도

잊지 않고 물고기잡이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장정현 등 무, 2.5mm 이상의 압력을 거겨내며 유압판의 이상요소를 제때에 피치함으로 새 망가들의 동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은 기관장 오철국 등 무와 사업소의 어로공들...

정령 배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어로와 난관을 파고히 박고 만선기를 힘차게 휘날려온 어로공들의 불타는 애국정파와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사업소는 년 단 물고기잡이계획을 한달이상이나 앞당겨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펼치게 되었다.

이들이 잡아온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우리가 잘사는 것을 바치지 않는 온갖 원수들에게는 준엄한 철수를 내리는 총포탄이 되었고 도안의 초동, 중동학원의 원아를 비롯하여 우리의 힘은 아이들과 인민들에게는 행복의 웃음을 더 활짝 꽃피우려는 자양분으로 되었다.

오늘도 원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미더운 어로공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투쟁의 뜻을 달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정파로 맞이하기 위한 대고조전투에 한사관없이 자랑찬 위훈으로 빛나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이 땅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중앙기관들과 각 도의 책임일군들이 조직적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는 가운데 동해어장이 더욱 새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중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에서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들, 어구자재들과 함께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물고기잡이에 펼쳐나선 동해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산부에서는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무적세우며 물고기대풍을 차추어 인민들의 식량우에 바다항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성에서는 물고기잡이전투에 필요한 철수배의 연유와 80여의 최비출, 10여의 그물들을 마련하여 가공모건에 전선이나 중심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배들에 보강해줌으로써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도록 하였다.

식료일용품업성, 수배항정성에서는 수많은 식료품들과 생

활필수품들을 보내줌으로써 어로공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각 도에출선전대들에서도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물고기잡이전투에 떨쳐나선 어로전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백배 해주었다.

보건성에서는 날마다 주를잡고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고있는 어로공들을 위한 현장치료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각 도수산관공들의 일군들이 직접 배를 타고 현장에서 어로공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어로전투를 지원하고있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수산관공들의 일군들은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어구들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 직접 배를 타고 중심어장으로 달려나가 물고기잡이를 지원하면서 어로공들의 정신력을 총괄하고있다.

동해어장이 열리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은 이 땅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인민들의 식량우에 바다항기가 차넘치게 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물고기대풍으로 빛내일 드는 일념으로 펼쳐나선 동해수산부문의 어로공들에게 심신을 더 해주었다.

전 혁 철

백두의 칼바람에 만선기 필 필 휘날려 가리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동해어장 어로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편일 전해졌다.

하지만 사나운 날바다한복판에 자기의 초소를 정하고 어로공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인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있다.

위대 한 명도 자기 감동일 지겨서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열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였다.

기승을 부리며 덮쳐드는 파도를 가르며 동해의 어장으로 떠나는 고기배들에는 의료일군들도 있었다.

이들이 자기의 전투과지를 물고기잡이전투가 한창인 어장에 도착하는 사연이 있었다.

의료일군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빈틈없이 세웠다.

환자치료를 절실히 필요한 어로공들을 마련하는 한편 구급환자가 제기되면 즉시 후송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시키

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놓았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중환자들이 제기되면 소생전투를 긴급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의료일군들이 밤낮을 막론하고 달려오던 근무조도 해놓았다.

어느날이나 현지로해를 위해 포구로 나갔던 의료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웠다.

만선기를 날리며 포구로 돌아온 즉시 그날 저녁의 전투에 또다시 진입할 준비를 서두르는 어로공들, 몸부림치는 이상한 조짐이 느껴져 감병검진을 받아야 한다 고 요구하던 한 초가 새롭다며 만류하는 어로공들,

그들중에는 검진을 받느라 지체하는 사이에 동해의 물고기기가 달아나버려 어찌겠고 하면서 불편한 몸이지만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잡기 위해 자기 한몸 짊어지고 바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의료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환자 이들을 물에다가 아니라 물고기잡이로 들끓는 바다한복판에서 현장치료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 동해어장을 타고앉아 물고기잡이에서 편일 기적을 창조하는 어로공들에 대한 현장치료를 결코 할 필요가 없었다.

곳은 날씨가 개지 않고 온종일 크고작은 배들을 오르내리며 진행하는 감병검진과 치료사업은 또 하나의 전투였다.

열악이 있어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고 따뜻한 살려주기를 하루에도 그 몇번, 적은 로력으로 수많은 어로공들의 건강을 그렇게 돌보다 후 쓰러질까봐 물로 즉시 들어갈것을 요구할 때면 의료일군들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전하의 그날에 비발 치듯 포탄이 떨어진다고 환신참호를 떠난 군의들을 본적이 있는가. 여기가 바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는 우리의 전투과지이다.

이런 불같은 각오를 안고 의료일군들은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선전과 함께 고려의학치료와 신의학적치료를

적극적으로 배합하며 어로공들에 대한 로보봉사활동을 더욱 전투적으로 벌였다.

순간도 잠들 줄 모르고 광판하는 바다한복판에 자기들의 초소를 스스로 정하고 힘겨운 치료전투를 벌이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물고기잡이전투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말없는 화신선동이었다.

하기에 어로공들은 날에 날마다 높아진 자기들의 생산실적이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자우도 뜨겁게 깰어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위대 한 명도 자기 감동일 지겨서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리워가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펼쳐나선 어로공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원수산사업소의 포구에서 편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져있다.

높은 물고기잡이성과 파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는 일군들, 방충선전차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가리라 배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선동에 맞추어 경제선동을 한창히 벌려가는 기풍에출신동맹원들, 어로전은 곧 당정책위전이며 사회주의제도보위전이라는 힘있는 글방이 새겨져있는 직관들과 사로의 경쟁심을 북돋아주는 사회주의경쟁도, 포구에 나붙기는 붉은 기폭들...

만선하고 돌아오라는 당부를

다마시고 울리는 출항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며 풍어기를 높이 휘날리며 포구로 들어오는 어로공들을 축하하는 환영모임은 또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얼마나 높여주었는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투를 따라배워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펼쳐나선 사업소어로공들의 정신력을 확대분출시키기 위한 화신선전사업이 얼마나 힘있게 진행되고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는 포구의 모습이었다.

사업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하에 포구에서의 집중경제선동과 함께 어로공들의 영양전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었다. 각지의 예술인들과 현지에 달려나와 전투적기백이 넘치고 호소성이 강한 경제선동으로 어로전사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청년중앙에 출선전대와 강원도에출선전대원들의 힘은 노레스라는 우리 어로전사들의 가슴마다에 혁신의 불길기를 더욱 새차게 지져주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달라던 그들의 절절한 당부바 담긴 힘있는 경제선동은 어로공들의 심금을 흔들었고 더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안아왔다. 사업소 일군의 이야기였다.

포구를 들쭉하여 한 경제선동의 북소리와 더불어 더욱 희한한 풍경을 펼쳐며 초나날 물고기산은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주명봉

## 어장의 화선군의 들

## 어로전사들의 심장의 맥동을 더해 주며

적극적으로 배합하며 어로공들에 대한 로보봉사활동을 더욱 전투적으로 벌였다.

순간도 잠들 줄 모르고 광판하는 바다한복판에 자기들의 초소를 스스로 정하고 힘겨운 치료전투를 벌이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물고기잡이전투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말없는 화신선동이었다.

하기에 어로공들은 날에 날마다 높아진 자기들의 생산실적이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자우도 뜨겁게 깰어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위대 한 명도 자기 감동일 지겨서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리워가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펼쳐나선 어로공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원수산사업소의 포구에서 편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져있다.

높은 물고기잡이성과 파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는 일군들, 방충선전차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가리라 배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선동에 맞추어 경제선동을 한창히 벌려가는 기풍에출신동맹원들, 어로전은 곧 당정책위전이며 사회주의제도보위전이라는 힘있는 글방이 새겨져있는 직관들과 사로의 경쟁심을 북돋아주는 사회주의경쟁도, 포구에 나붙기는 붉은 기폭들...

만선하고 돌아오라는 당부를

다마시고 울리는 출항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며 풍어기를 높이 휘날리며 포구로 들어오는 어로공들을 축하하는 환영모임은 또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얼마나 높여주었는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투를 따라배워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펼쳐나선 사업소어로공들의 정신력을 확대분출시키기 위한 화신선전사업이 얼마나 힘있게 진행되고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는 포구의 모습이었다.

사업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하에 포구에서의 집중경제선동과 함께 어로공들의 영양전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었다. 각지의 예술인들과 현지에 달려나와 전투적기백이 넘치고 호소성이 강한 경제선동으로 어로전사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청년중앙에 출선전대와 강원도에출선전대원들의 힘은 노레스라는 우리 어로전사들의 가슴마다에 혁신의 불길기를 더욱 새차게 지져주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달라던 그들의 절절한 당부바 담긴 힘있는 경제선동은 어로공들의 심금을 흔들었고 더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안아왔다. 사업소 일군의 이야기였다.

포구를 들쭉하여 한 경제선동의 북소리와 더불어 더욱 희한한 풍경을 펼쳐며 초나날 물고기산은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정순성

위대 한 명도 자기 감동일 지겨서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리워가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펼쳐나선 어로공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원수산사업소의 포구에서 편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져있다.

높은 물고기잡이성과 파로

위대 한 명도 자기 감동일 지겨서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었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리워가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 펼쳐나선 어로공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원수산사업소의 포구에서 편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져있다.

높은 물고기잡이성과 파로

##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3일 귀국하였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치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를 쟁취하였다.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세계력기강자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온 엄윤철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56kg급기 추켜올리기에서 171kg을 들어올려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영예의 1위를 하였다.

그는 종합에서 우승함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 광복쟁쟁공화국을 미국땅에 힘차게 휘날렸다.

김근국선수는 남자 62kg급기 추켜올리기에서 1위를 하고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2위를, 리성금선수는 여자 48kg급기 추켜올리기에서 1위를 하였다.

여자 75kg급기에서 나선 범성심선수는 경기도중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2위를 하여 백두의 혼연열풍속에서 다다른 주재조선의 체육인의 역

인 최영남인민봉사총국장, 판계부인 일군들, 가족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제1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소문없이 전진을 바쳐가는 창원 인민보안원들 가운데는 남포시인민보안국 일군인 주영식동무와 교통보안원들도 있었다.

시인의 도로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교통상편의를 보장하는 데서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 주영식동무와 인민보안원들의 노력이 크게 깰어있었다.

새 날은 작업복차림으로 시인의 중요건설장들을 찾은 주영식동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인상이어서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가 보건할건, 알수없는건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봄이었다.

와우도구역 체육촌주변을 돌아보면 주영식동무는 흔들거리는 쇠바줄다리를 보며 불현듯 오고가는 주민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다마져 없으면 주민들이 5리길을 예닐곱달아야 하였다.

주영식동무에게는 그일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낡은 줄다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날씨가 사나워 떠나 깊은 밤에

최고 검찰소 대표 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쓰여진 씩씩한 투쟁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장단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또는 장난치며 아이들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주민들이 리용하는 그 5리길을 직접 길로 줄여주고싶은 생각이 떠날 줄 몰랐다.

사실 세 도로를 만들고 하여 큰 경제적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작전과 불같은 헌신으로 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워다라 끝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길이 8km에 달하는 후포천에 오래된 댐인 땀인 강물을 이루리 파내고 풀이 넘실거리지 않았다. 여러대의 굴착기가 용을 쓰고 수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강물을 파내려는 전투장은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보안국 군인들로 불비였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최고 검찰소 대표 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쓰여진 씩씩한 투쟁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장단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또는 장난치며 아이들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주민들이 리용하는 그 5리길을 직접 길로 줄여주고싶은 생각이 떠날 줄 몰랐다.

사실 세 도로를 만들고 하여 큰 경제적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작전과 불같은 헌신으로 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워다라 끝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길이 8km에 달하는 후포천에 오래된 댐인 강물을 이루리 파내고 풀이 넘실거리지 않았다. 여러대의 굴착기가 용을 쓰고 수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강물을 파내려는 전투장은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보안국 군인들로 불비였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최고 검찰소 대표 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쓰여진 씩씩한 투쟁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장단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또는 장난치며 아이들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주민들이 리용하는 그 5리길을 직접 길로 줄여주고싶은 생각이 떠날 줄 몰랐다.

사실 세 도로를 만들고 하여 큰 경제적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작전과 불같은 헌신으로 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워다라 끝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길이 8km에 달하는 후포천에 오래된 댐인 강물을 이루리 파내고 풀이 넘실거리지 않았다. 여러대의 굴착기가 용을 쓰고 수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강물을 파내려는 전투장은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보안국 군인들로 불비였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최고 검찰소 대표 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쓰여진 씩씩한 투쟁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장단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만났다.

또는 장난치며 아이들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주민들이 리용하는 그 5리길을 직접 길로 줄여주고싶은 생각이 떠날 줄 몰랐다.

사실 세 도로를 만들고 하여 큰 경제적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작전과 불같은 헌신으로 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워다라 끝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길이 8km에 달하는 후포천에 오래된 댐인 강물을 이루리 파내고 풀이 넘실거리지 않았다. 여러대의 굴착기가 용을 쓰고 수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강물을 파내려는 전투장은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보안국 군인들로 불비였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엄윤철, 김근국, 리성금선수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선수, 감독들과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평양시내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선수, 감독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의 넘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든든하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낡은 줄다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날씨가 사나워 떠나 깊은 밤에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 새기며

남포시인민보안국 일군인 주영식동무와 교통보안원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 새기며

남포시인민보안국 일군인 주영식동무와 교통보안원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 새기며

남포시인민보안국 일군인 주영식동무와 교통보안원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 새기며

남포시인민보안국 일군인 주영식동무와 교통보안원들

그러나 주영식동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감판을 타고앉은 굴착기의 운전간이 그가 정한 전투과지였 던것이다.

이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약을 남달며 씹어삼키면서도 날마다 굴착기에 오르내리는 전투를 지휘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었다.

후포천이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댐은 흩어내려가고 주변에는 광도 꾸러져 각종 체육경기과 민족오락에 심취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주영식동무는 또 다시 인민을 위한 일감을 찾고 있었다.

주영식동무는 수질이 좋은 샘물을 찾아내어 샘물공급소를 꾸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남포시에서는 시장위원회 지도부에 수십개의 샘물공급소



